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성 바로잡기는 지금 가장 필요하다.

한보미(고려지부)

UN과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인 SDGs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삶은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모두가 주목해야 할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여러 부분을 무너지게 했고, 양극화 또는 불평등의 심화 및 눈에 띄지 않던 제도의 문제점들이 한순간에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하며,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다. 이런 시기에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며 시행되었던 세계시민교육을 논의하는 것은 감염병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민성을 되찾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일까? 먼저, 시민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여러 시대를 걸치면서 의미가 조금씩 변화했지만,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전한 지금, 시민의 의미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역할과 책무를 실천하며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 라고 말할 수 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시민성을 깨닫게 하며, 바른 판단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심어주는 활동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등의 표현이 심각해지고,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가 감염병 상황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흐려지고, 시민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세계시민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공동체적 상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시민성을 찾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도 고민해봐야 할 논제일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현 상황을 극복하며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청년들일 것이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성의 발굴과 이후에 생기게 될 여러 사회 문제 속에서 시민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국제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일 것이다.

<출처>

심우정 (2020).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 담론: UN SDG 의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
관리 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78-80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2020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자료집, 코로나 19로 보는 세상이야기

<http://ibonita.org/archives/2248>